서울 강남구 청담동

원빈 '연기는 잠시' 여유로운 귀농 생활로 힐링



연합뉴스

연예계 대표 미남 원빈(본명 김도진)은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에서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배우를 꿈꿔 여량초·여량중·춘천기계공업고를 졸업하고 20세 때 꿈을 이루고자 상경했다.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틈틈이 오디션에 지원했다. 그러다 케이블 TV 제일방송의 신인 연기자 공모에 응시해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합격 후 단역 배우 활동하다 유명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눈에 띄어 패션쇼에 진출했다. 이를 계기로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마음에도 들면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대표의 권유로 '원빈'을 예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7년 KBS2 드라마 '프로포즈'로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뒤 같은 해 MBC 캠퍼스 드라마 '레디고'에서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로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성) 한승주 역을 맡아 부잣집 도련님에 학업도 우수하지만 내면에 쓸쓸함을 가진 모습을 훌륭히 소화했다.



2000년에는 송승헌, 송혜교와 함께 KBS2 '가을동화'에 출연해 일약 스타덤에 올라 한류 배우로 떠올랐다. 당시 상대 배우였던 송혜교에게 원빈이 건넨 "얼마면 돼"라는 대사는 현재까지도 많은 연예인이 따라 할 정도로 상당한 화제를 일으켰다.

이듬해 영화 '킬러들의 수다' 출연으로 차츰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관객 1174만 명을 모아 천만 배우로 거듭났다.

이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거쳐 2010년 영화 '아저씨'로 스타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그는 당시 국내 영화 시나리오는 절반 이상이 원빈을 거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조각 같은 외모와 믿고 보는 흥행배우가 된 원빈은 '아저씨' 이후로 배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활동이 베일에 싸인 만큼 2013년 당시 같은 소속사의 배우 이나영과 열애 사실을 인정했을 때 대중의 관심은 엄청났다.

이후 두 사람은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다. 3년간의 열애 끝에 2015년 5월 원빈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강원도 정선의 밀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단돈 10만 원의 스몰웨딩으로 눈길을 끌었다. 푸른 밀밭에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스몰웨딩' 붐이 일기도 했다. 그해 12월 결혼 7개월 만에 득남 소식을 전했다.

열애설부터 결혼 그리고 출산까지 사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화제가 될 정도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만 평소 예능프로그램 및 토크쇼 출연이 극히 드물어 신비주의 연예인으로 불린다. 긴 공백기에도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된다.

2010년 개봉 영화 '아저씨' 이후 13년간 차기작 없이 광고 촬영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원빈의 목격담이 최근 공개돼 화제다.

한 누리꾼은 올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려 원빈, 이나영 부부가 직접 기른 아로니아즙. 오랜만에 운동 갔다가 get! 너무 써서 생즙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 쓴 걸 먹으면 나영 언니처럼 예뻐지나요?'라는 목격담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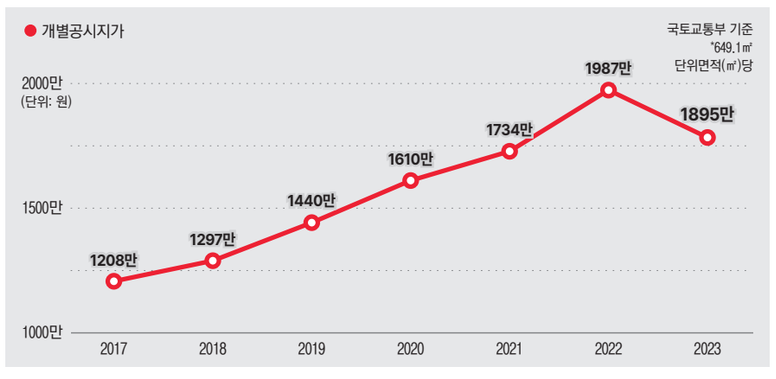
또 다른 누리꾼은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번에 원빈 근황 보니까 쿠킹클래스하고 참기름 짜서 지인들 나눠 준다던데"라고 작성해 농촌 라이프를 즐기고 있음을 추정하게 했다.

한편 원빈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딩 한 동(사진)을 2018년 아내와 공동명의로 145억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1992년 준공됐고 규모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2456.19㎡(약 742.99평), 대지면적 715.1㎡(약 216.31평)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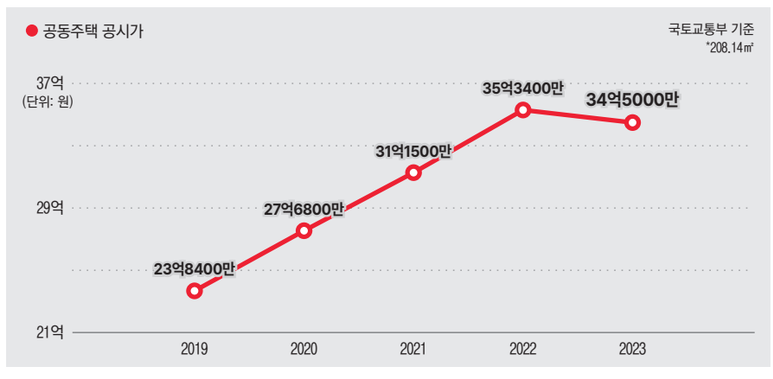
도산대로 이면 청담은행나무어린이공원 근처에 있고 주변에는 이니그마빌·마크노빌 등 최고급 빌라들이 늘어서 있다. 소형 오피스와 웨딩숍·헤어숍·스튜디오·갤러리·고급 레스토랑 등도 곳곳 존재한다. 청담 패션거리·갤러리아백화점·스타필드 코엑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입지 조건도 뛰어나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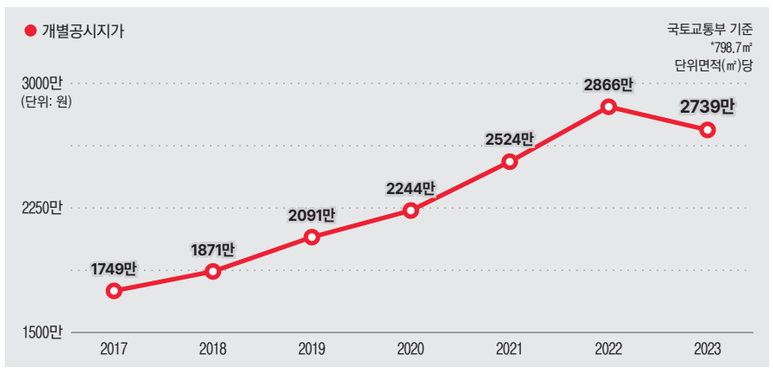
빌딩(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희애 현)배우



김희애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혜화여고 1학년 재학 중 의류 CF 모델로 데뷔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 영화 '스무해 첫째날'로 스크린에 데뷔한 뒤 1986년 KBS 드라마 '여심' 주인공에 캐스팅됐다. 스무 살의 신인임에도 한 여인의 인생을 10대부터 60대까지 훌륭히 소화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다. 이후 드라마 '산 너머 저쪽' '분노의 왕국' '아들과 딸' '폭풍의 계절' '하나뿐인 당신' '완전한 사랑' '부모님 전상서' '밀회' '부부의 세계' 등과 영화 '불의 회상' '영웅 돌아오다' '우아한 거짓말' '사라진 밤' '윤희에게' 등에 출연하면서 최고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4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퀸메이커'와 8월 개봉 영화 '더 문'에서 묵직한 연기를 선보였다.



김정현 현)제일비엠시 대표이사



김정현 제일비엠시 대표이사는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그룹에 입사해 평사원 시절부터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2000년 종합 아웃소싱 전문기업 제일비엠시를 창업하고 2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HR(인적자원)서비스 업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종합 아웃소싱 전문기업의 대표주자로 키웠다. 지난해 5월25일 대통령실 잔디광장(용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기업인대회는 한국 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다. 그는 판매판촉 운영대행, 건물종합관리, 물류도급, 생산 제조 도급, 근로자파견 등 다양한 아웃소싱 분야에서 전업주부 및 중장년층 실직자, 청년구직자,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 제공해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안정에 많은 공헌을 했다.



지춘희 현)미스지컬렉션 대표



지춘희 미스지컬렉션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고 재능을 살려 1979년 서울 명동에 '지' 의상실을 개업했다. 당시 명동에는 앙드레김, 진태옥, 이신우 등 거물급 패션디자이너들이 자리 잡던 패션계의 전성기였다. 지 대표가 디자인한 옷은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 세련되고 단아하다는 평을 들으며 서울 멋쟁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1980년대 명동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이름을 변경해 현재의 '미스지 컬렉션'이 됐고 지 대표를 부르던 호칭(미스 지)에서 따 왔다. 그가 디자인 한 옷은 여러 여배우가 입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2005년에는 1970~80년대 패션을 다룬 SBS 드라마 '패션 70's'에서 의상 제작과 총괄을 맡았다. 이후에도 심은하, 고현정, 황신혜 등 유명 배우 의상을 통해 그의 옷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또 배우 원빈과 이나영의 결혼식 예복도 디자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이문 아이파크 자이' 1467가구 일반 분양

서울 동대문구

서울 이문·휘경뉴타운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10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25개동·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이뤄져 있으며 금회 분양에서는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20~102㎡·총 146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1만4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인 이문·휘경뉴타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향후 강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인데다 신이문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이문로·망우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이 있어 차량을 통해 도심 및 강남권 등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이와 함께 단지 인근 청량리역의 경우 기존의 1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 강릉선 등과 함께 GTX B(송도~마석)·C(덕정~수원)노선과 면목선(청량리~신내)·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계획돼 있어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특구'로 불릴 만큼 우수한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이문초·석관중·석관고·경희중·경희고 등 각급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에 한국외대·경희대·한국예술종합학교·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생활환경도 롯데백화점·코스트코·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이 있고, 경희의료원·삼육서울병원·이문체육문화센터·이문 어린이도서관·주민센터 등 각종 편의·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거 쾌적성도 돋보인다. 단지 앞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뒤편으로는 천장산과 의릉이 펼쳐져 있는것을 비롯해 주변에 중랑천 수변공원·청량근린공원·천장어린이공원·홍릉시험림 등의 자연친화시설이 풍부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커뮤니티센터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77번지에 10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1단지와 2단지가 2025년 11월, 3단지가 2026년 5월 예정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홍제동 일대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 선정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가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0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주민동향·미선정사유 해소여부·사업혼재 여부·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홍제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서울시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0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28일로 적용 고시 예정이며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